



○계율이란 불제자로서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의 길라잡이라고 강조하시는 범룡스님.



○범룡스님은 부처님처럼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원을 가지고 정진하기를 권유하셨다.

호려져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98년과 99년 두차례 일어난 조계종 사대도 청정계를 정신이 희박해져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계법(戒法)을 전하는 계사이며 종단의 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천계대화상으로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실텐데요. 일부에서는 2천5백년전에 만든 계율기에 현대에 맞지않아 계율을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난이 부처님 임종전에 여쭈었지요. 부처님께서 오늘을 계시지만 내일 열반에 드시면 비를 수 없는데 돌아가신 뒤에는 어떡합니까? 부처님께서 "계율로써 스승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불교가 율공계 살아나려면 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수행자들은 술먹고 고기먹는게 반야지에 걸림이 없나 뭐라나 하며 제멋대로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런 중생은 제 업대로 살다 가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계율은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말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계율이란 불제자로서 걸어야 할 길을 가는 길라잡이요, 지킴에 의해 깨닫는 법입니다. 계를 받고 안 지키는 것은 바로 자기자신 탓이지 않나 주위 환경을 탓해서는 안됩니다.

초파일은 '성불' 다짐하는 날 '계 지키기' 머리가 아닌 몸으로

듣게 됩니다. 사실 젊어서는 불법을 만나도 나중에 수행하면 되지 뭐 하는 안일한 마음이 들기 십상입니다. ▲'사난득(四難得)'이란 말이 있어요. 네가지 얻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사람을 만나고 남자를 태어나고 어렵고, 출가사문이 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불자들이 불교 안에서 사니까 잘 모르지만 부처님만 만나기는 정말 인연이 안 되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처님만 만났을 적에, 그리고 참선법을 만났을 적에 진심정려로 한번 해보기를 권하는 것이지요. 특히 출가의 인연이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승려생활이라는게 남보기에 관한 것 같지만 사람구실 할려면 공생에 한 생 안 난생 치고 부처님처럼 해보자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다보면 유혹이 많게 마련이지요. 공부하다가도 이게 아닌데 혼돈도 오고 공장 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지 그지 없어요. 그러기에 스승과 도반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선을 한 번 해 보려면 여간해선 어려워요. 세상만사 다 작해하고 이 세상에 나서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공생에 이것밖에 할 일이 없다 그 생각만 있어도, 남은 생을 성불하는 일에 몰바치며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조금 하고 나가 자기 불보 보고 또 조금 하고... 겁대기만 하다보면 도가 터질 수가 있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 참선하는 도리를 알았으면 그것에 몸을 한번 던져보아야지요. 그래서 옛분들이 그랬어요. "한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만겁이라도 또 사람

부여하지요. 재가불자들은 좀더 부지런해야겠지요.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도 좀 늦게 자고 시간을 내어주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잠도 좀 덜 자고 시간을 내어 자기수련을 해야 합니다.

— 불교에서는 마음을 놓상 얘기합니다. 마음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비워야 한다고 하는데 마음도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우리 마음이 항상 생주이멸(生住異滅)로 끝나는 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무슨 생각이 죽 나서는 조금 머물러 있다가 달라지거든요. 아침에 자고 깨서부터 잘 때까지 멍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요. 백 가지를 했는지 더했는지... 그런데 그것이 모두 생주이멸로 끝납니다. 우리 몸은 생노병사로 끝나고, 우리가 앉아있는 지구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이거든요. 모든 것이 영원한 줄 착각하지만 어느 것 하나 무상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돌아가니 고정된 실체란 게 없고 실체가 없으니 집착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향선을 열심히 해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보세요. 생주이멸하는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곧 공즉임을 안다면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요. 모든 것이 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여기 팔공산에도 기도객들이 많이 오는데 기도할 때 원을 좀 크게 세워 보세요. 내 가족, 내 자식을 위한 기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성불해서 부처님처럼 일체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대원(大願)을 좀 세워보세요. 하나의 등을 밝히면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밝히는 연등과도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 가짐을 부처님오신날만이라도 새롭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이경숙 부장 (gslee@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nia.com)

대답=이경숙 부장 (gslee@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nia.com)

대답=이경숙 부장 (gslee@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nia.com)

대답=이경숙 부장 (gslee@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nia.com)

지옥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옥스님

莫逐有緣(막축유연) 세속 인연을 따르지 말고 勿往空寂(물주공인) 출세간의 공에도 머물지 말지니라.

이 법문은 삼조(三祖) 승찬(僧璨) 대사의 <심심명(信心銘)> 한 부분이다. 지옥스님은 이 법문대로 사시는 분으로 믿어졌다.

스님은 공양을 아침과 점심만 하고 저녁은 하지 않으신다. 율력을 한 날, 시내에 불일을 보러 갔다가 온 날 역시 두 끼니로 정해져 있다. 그래도 광상대로 일을 다 하신다. 어떤 때에는 공양수가 방편을 써서 스님, 국수예요" 하고 권할 때 마지못해 조금 드신다. 나는 처음 이 모습을 보고 저녁은 '오후 불식'에서 '오후 불밥'이란 말을 생각해냈다.

흥내내어 오후 불식을 하거나 오후 불밥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 나는 어떤 때 밥만 안 먹고 미수가루를 한 대접 먹은 일도 있다. 또 절 밖에 나와서는 자정전으로 도 채웠다. 원칙을 말한다면 반칙임에 틀림이 없는 일이다.

장좌불와중 졸음와도

별난 취미로 물리치고...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는 자유인. 지옥스님은 그런 분이다. 장좌를 하시는 걸에서 밥을 지낸 적이 있다. 정말 졸지도 않으신다. 현대 특이한 방편이 있는.

사람마다 잠이 오는 시간대가 다르다. 초저녁, 한밤중, 새벽녘 등 재가자 잠이 쏟아져 오는 때가 다른데, 스님은 한밤중 견디기 어려울 때쯤이면 좌선하는 자세를 풀고 일을 시작한다. 공구가 많기도 하다. 시계, 카메라 같은 걸 다루는 정밀기구가 있는가 하면, 라디오, TV를 다루는 기구 등 범범 공구가 다 있다. 물건을 들었다가 맞추고 또 손볼 것이 있는 걸 손본다. 처음에는 들었다가 맞추기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나 책을 통해서 혹은 전문가에게 알아보고는 원상태로 조립해내는 기술이 있으시다.

한 종이 위에 차근차근 나사못을 놓아놓고 순서대로 해체시키는 모습을 보노라면 재미가 있다. 일에 열중하는 동안 잠은 어느새 달아나 버리는 것이다. 잠은 올 때 죽어라고 쏟아져다가도 그 순간이 지나면 말끔 깨운다. 감각은 대개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 배도 고프다가 한동안이 지나면 그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야간 스님은 별난 취미로 잠을 물리치는 비결을 가지고 있으신다. 춘성 스님은 방중에 걷는 걸로 잠을 물리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앉아서 있으면 졸음에 지기 때문이다. 어떤 스님은 송곳을 턱 아래에 바로 세워두고 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처음에는 송곳 때문에 앞으로 꾸벅 거리지 않다가 며칠이 지나서는 좌우로 꾸벅거렸다.

잠을 이기는 사람은 장사도 그런 장사가 없다. 백두장사 한라장사에 비할 바가 아니다. 나는 앞면 졸음에 빠진다. 전생애 무

슨 연을 지었기에 공부는 뒷전에 가고 그렇게 잘 조는 것인지 한심스럽다. 오후불식을 하면 졸음이 적으나 또 허리힘이 없어 자꾸만 허리가 굽어지는 게 탈이다. 이래저래 힘들다.

한밤은 신도분의 따님이 와서 주지실에 누워 지낸 적이 있었다. 대학생인데 어딘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는 모양 같았다. 물론 방사가 비좁아서 그런 탓도 있었겠지만 스님은 그런저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남자가 여자 하고 가리는 일도 별 무리 없이 넘기셨다. 평소 약간 까가 있을 양이면 소문이 파다하게 날 터인데 말이다.

"주지실에 여자가 자고 있다."

"곤알이다. 문란해진 주지실을 그대로 둘 것인가?"

어찌구 저찌구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높을 법한데 역시 스님의 법력 탓인지 아무 탈이 없었다. 혹 이 이야기는 내가 오해할



그림·문병성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속가 친척의 조카에 정도 되는 말 아이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 통하는 이야기인가. 자칫하면 밤에 남녀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만 있어도 말이 많은 세상이 아닌가? 초연해졌다고 해도 그렇게 하기는 보통이 아니다.

스님의 생활에서 나는 어떤 승보의 표준이랄까 불제자로서 스님의 전형적인 모습이 잡혀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 방황도 이 이후 다소 잡힌 셈이다.

"스님, 선방을 갈려면 어느 선방을 갈까요?"

지옥 스님은 이 질문에, "요즘 새로 개원한 불국사가 좋을 것이오."

하고 추천하셨다. 불국사 선원에서는 중국식 단(壇) 위에서 좌선을 한다는 이야기가 호기심을 끌었다. 개원한 지 몇 년 밖에 되지 않아 일타 스님 등 평평한 스님네가 계신다는데 나도 동참하고 싶었다.

스님의 개연(開眼)은 회양산 봉암사 조실을 지냈던 서암(西庵) 스님과 함께 정진을 할 때 한 스님은 산에서 내려오고 한 스님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눈이 서로 마주치자 이미 과거의 그 범부 중생이 아님을 간파하고 서로 인가를 하겠다는 일화가 선방 지대 방에 전해온다. 불불상견(佛佛相見)이라. 부처가 부처를 알아본다는 법문 말씀 그대로인 것이다. <글>

행운의 달마 · 관음 · 지장 순금카드 열쇠고리 직접 · 주문 · 제작 전문

999 순금, 뒷면에는 고귀한 원하시는 각종 글씨, 그림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스텐의 주문이라도 특판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삼재소멸, 소원성취, 건강부, 락업성취, 사업성취

마야불교사에서는 불보살님의 자애로운 마음처럼 불사 판매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상, 탱화, 단청, 불단, 법보시용품, 출판 기타 불사상당, 사찰정보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9 (반월당 보현사입구)
전 화 : 053)256-6555 팩 스 : 053)256-6555 (현대불교 대구 반월당 부급소)
휴대폰 : 011)507-6550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치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약약)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학박사)

●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h-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생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